

반 주 법

유아교육학과 박 주 원

반 주 법

(4주차)

음 계

1. 음계의 의미

음계란 어떤 음을 기초로 하여 음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높이의 차례로 배열한 것을 음계라고 한다.

음계의 배열은 시대의 흐름이나 민족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 있는 음계가 존재한다.

서양음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계는 장음계와 단음계이다.

(1) 장음계 (Major Scale)

장음계란 어떤 음을 기초로 해서 2도씩 쌓아지는 음계이며
8개의 음을 배열 할 때 3~4음 사이와 7~8음 사이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 즉 2개의 반음과 5개의 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음에서 시작하던지 이 배열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1음이 도(C)가 아닌 솔(G)음으로 시작하는 음계,
즉 사장조 음계를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8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사	가	나	다	라	마	올림바	사

“솔”로 시작하는 음계를 만들어보면 3~4음과 7~8음이 반음이
되어야 장음계가 이루어진다 하였다. 위와 같이 “솔”로
시작하는 사장조 음계에서 3~4음은 반음이나 7~8음은 반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7음에 올림표(#)를 붙여서 반음을
만들어 주어야 온전한 사장조 음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조표에 의한 음계가 형성 되는 것이다.

-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올림표가 붙은 장음계를 살펴보자

사장조 장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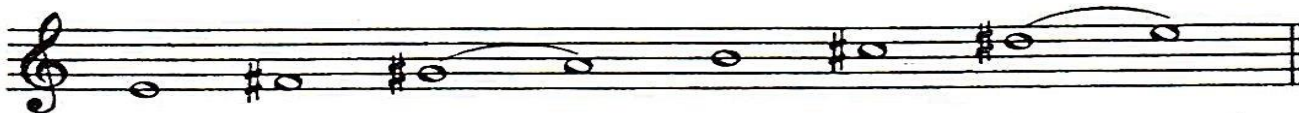
라장조 장음계



가장조 장음계



마장조 장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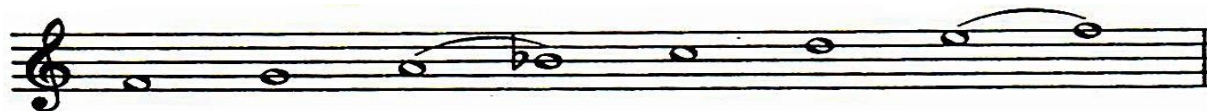


- 이렇게 형성된 올림표가 붙은 장음계의 조표를 살펴보면 항상 조표의 마지막 올림표가 그 음계의 제7음인 이끔음에 붙으며 #이 붙은 그 다음 음이 으뜸음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조표를 보고 으뜸음을 알아내고 음계를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 다음은 내림표가 붙은 장음계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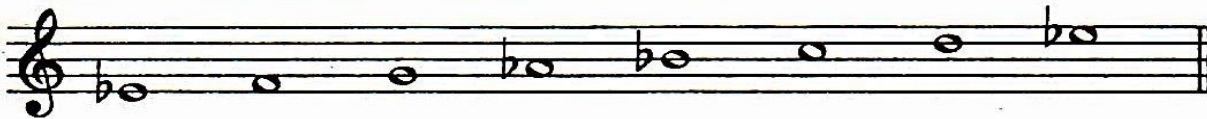
바장조 장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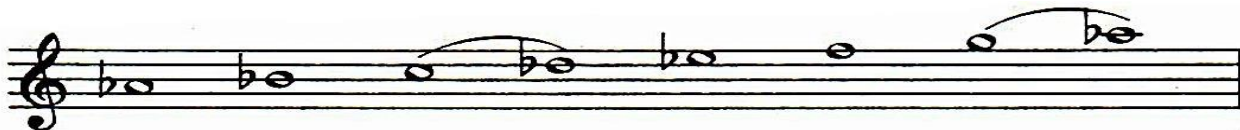
내림나장조 장음계



내림마장조 장음계



내림가장조 장음계



〈반주법〉

- 이렇게 구성된 내림표가 붙은 장음계의 조표를 살펴보면 항상 내림표(b)이 붙는 음은 으뜸으로부터 4번째 음이 된다.
b이 붙는 순서대로 생각할 때 마지막 b 바로 전의 b 붙은 음이 으뜸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조표를 보고 으뜸음을 알아내고 음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The image displays four musical stav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mode. Above each staff, a label indicates the position of the flat sign (b) relative to the tonic (1st degree). Below each staff, the mode name is written in Korean.

Label	Mode Name
4번째음	바장조 (Major)
4번째음	내림나장조 (Minor)
으뜸음	내림마장조 (Major)
4번째음	내림가장조 (Minor)

★ 내림표가 붙는 순서 : 시→미→라→레→솔→도→파

(2) 단음계(Minor Scale)

단음계란 어떤 음을 기준으로 해서 8개의 음(1옥타브)을 배열할 때 2~3음 사이와 5~6음 사이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으로 구성된 음계를 말하며 그 배열에 따라 자연단음계, 화성단음계, 가락단음계의 세가지로 나눈다.



a조의 자연단음계



a조의 화성단음계



a조의 가락단음계

① 자연단음계(Natural minor scale)

장음계는 제3음과 제4음, 제7음과 제8음 사이가 반음이었다. 자연단음계는 제2~3음, 제5~6음 사이가 반음이다. 자연이란 이름은 어떤 장음계에서든지 단3도 아래에 음렬을 놓으면 자연적으로 단음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② 화성단음계(Harmonic minor scale)

자연단음계 배열에 제7음을 반음 올림으로서 충분한 종지감이 들도록 한 것이 화성단음계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음계이다.

③ 가락단음계(Melodic minor scale)

멜로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上行 때는 자연단음계의 제6음과 7음을 반음 올리고 하행 때는 제자리로 돌아와 자연단음계와 같다.

〈반주법〉

- 자연단음계는 어디까지나 기본형일 뿐이며, 실제로는 현재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화성단음계나 가락단음계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올림표나 내림표, 제자리표 등은 임시표로서 사용하고 조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음계는 장음계의 조표와 동일하나 으뜸음의 위치가 단3도 아래에 있다. 한 조표는 그 으뜸음의 위치에 따라서 장음계도 되고 단음계도 된다. 유아반주법에서는 마장조와 내림가장조까지의 동요를 많이 사용하므로 장조와 단조의 조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Diagram showing the notation for major and minor scales from C to E. The notation is written on a five-line staff with a treble clef. The notes are: C (middle C), G (first line), D (second line), A (third line), E (third space). The scales are: C 장조 (C major), G 장조 (G major), D 장조 (D major), A 장조 (A major), E 장조 (E major). The corresponding minor scales are: a 단조 (a minor), e 단조 (e minor), b 단조 (b minor), f # 단조 (f# minor), c # 단조 (c# minor).

장조	단조
C 장조	a 단조
G 장조	e 단조
D 장조	b 단조
A 장조	f # 단조
E 장조	c # 단조



Diagram showing the notation for major and minor scales from F to Ab. The notation is written on a five-line staff with a treble clef. The notes are: F (first space), Bb (second line), Eb (third line), Ab (third space). The scales are: F 장조 (F major), Bb 장조 (Bb major), Eb 장조 (Eb major), Ab 장조 (Ab major). The corresponding minor scales are: d 단조 (d minor), g 단조 (g minor), c 단조 (c minor), f 단조 (f minor).

장조	단조
F 장조	d 단조
B ^b 장조	g 단조
E ^b 장조	c 단조
A ^b 장조	f 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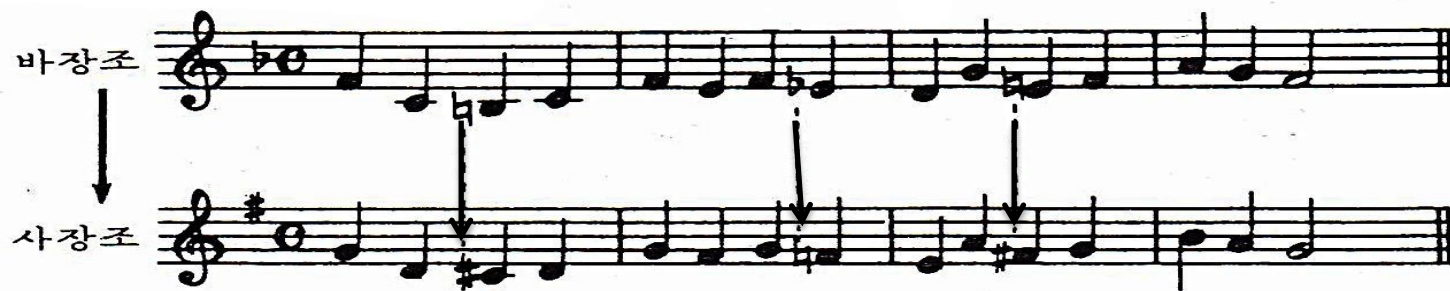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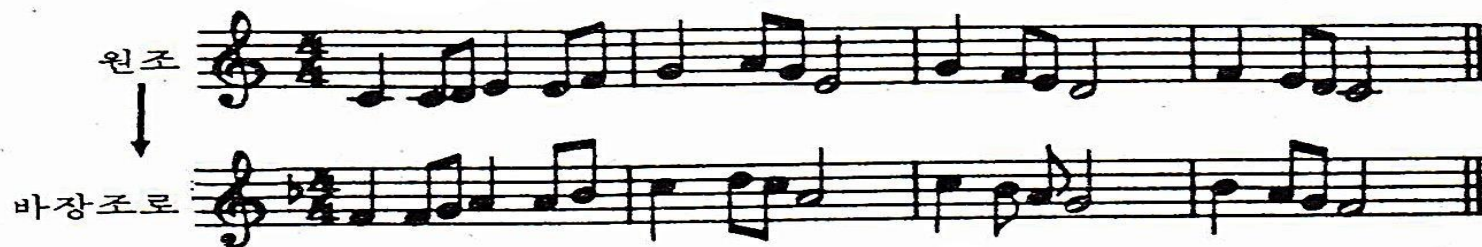
조옮김

1. 조옮김의 필요성

동요는 어린이들을 위한 곡으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작곡되지만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원조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악보의 음정을 전체적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다. 이와 같이 교육형편에 따라 악곡 멜로디의 음정을 원조에서 전체적으로 올리거나 내려서 다른 조성으로 옮기는 것을 조옮김이라 한다.

2. 조옮김의 방법

- ① 원조를 필요한 음정만큼 위, 아래로 옮겨 새로운 조표를 적는다.
- ② 원조와 새로운 조의 으뜸음에 의한 음정을 조사한다.
- ③ 새로운 조의 멜로디를 새로운 조에 맞는 게이름이 되도록 적는다.
- ④ 임시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연주하여 본다.



기초 반주 실습 준비

피아노 반주를 위한 피아노 실기 준비

1. 피아노 연주 자세

- 피아노 건반의 한 가운데에 반듯이 앉아 피아노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팔과 몸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피아노 의자는 앉았을 때 팔꿈치가 건반의 높이와 같으면 된다.
- 왼쪽 발은 몸의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편안한 위치에 놓고 오른쪽 발은 뒤킴치에 중심을 두고 페달사용 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피아노 연주 자세 사진



2. 손의 모양

- 피아노 건반 위에서 손 모양은 계란을 살짝 쥐고 있는 것 같이 둥근 모양을 하고 연주하면서 손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아서 세워준다.
- 손목은 반듯하게 하여 건반과 평행이 되도록 한다.
- 항상 어깨와 팔은 편안히 이완(Relaxation)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건반을 치는 손 끝은 건반을 정확히 누르고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단단히 조절되어야 한다.

손의 모양 사진



3. 피아노를 연주할 때 유의사항

- 손목을 부드럽게 하여 각 손가락의 힘을 고르게 한다.
- 어깨나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다.
- 눈은 건반을 보고 연주하는 것보다 악보를 보면서 정확히 연주하는 것이 좋다
- 양손을 따로 연습 후에 양손을 함께 연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음표의 진행에 따른 운지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
- 본인이 연주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Tempo 단계별 연습으로 빠른 악곡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4. 피아노 건반과 손가락

피아노를 칠 때 왼손과 오른손은 각각 1번부터 5번까지의 손가락 번호를 사용하여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다

